

특집논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박대식**, 남승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②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에서 실시한 1,019명의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에 관한 장기추적조사(1차년도) 결과이다. 귀농·귀촌인의 개인·가구 관련 특성, 귀농·귀촌 과정의 특성, 개인·가구 및 귀농·귀촌 과정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은 ‘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친목단체’ 순으로 높았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연령, 학력, 성별, 주거 형태, 가구소득,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고향귀촌·귀촌,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참여의 부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귀농·귀촌인은 주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사회적 인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장애요인은 ‘참여 관련 기회나 정보 부족’, ‘바빠서 시간이 없음’, ‘인맥 부족’ 등이었다.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PJ009983)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15년도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주제어: 귀농·귀촌인,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도, 귀농·귀촌 과정

1. 서론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2015)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의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586호이다. 이 중에서 귀농 가구는 11,144호이고, 귀촌가구는 33,442호이다. 귀농가구의 경우에는, 시도별 분포는 경북(2,172호), 전남(1,844호), 경남(1,373호) 순이었고,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2.4%, 60대가 21.4%, 30대 이하가 10.7%, 70대 이상이 5.9%이었다. 귀촌가구의 경우에는, 시도별 분포는 경기도(10,149호), 충청북도(4,238호), 제주도(3,569호) 순이었고,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29.5%, 40대가 22.0%, 30대 이하가 19.6%, 60대가 19.1%, 70대 이상이 9.7%이었다. 즉, 귀촌이 귀농보다 훨씬 더 많고, 귀농·귀촌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참여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Brown, 2002). 그리고 귀농·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과 해당 지역사회에 융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윤지·최용욱·남기천, 2014; 박대식·마

상진·최윤지·남승희, 2014; 박시현·최용욱, 2014; von Reichert, Cromartie and Arthun, 2014). 최근 현지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이 귀농·귀촌 실패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는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여주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귀농·귀촌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박문호·오내원·임지은, 2012; 김정섭, 2014; 황정임·최윤지·조현민·윤순덕, 2011). 더구나 지역사회참여 활동은 “도시와 다른 낮은 농촌 환경에서 심리적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일정 소득 창출, 지역문화 학습, 관계망 형성 등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황정임 외, 2011: 759)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지역사회참여 활동은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착과 농촌생활에의 만족도 제고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황정임 외, 2011:76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사례는 신문, 텔레비전, 귀농·귀촌 관련 서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등에서 다양하게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②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정의

지역사회참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현섭(2000)은 사회참여란 공동체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어떤 일이나 활동의 일부분을 떠맡아 수행하는 조직적 의사반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주성수(2006: 161)는 사회참여를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시민사회의 공동체 및 조직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성희자와 이강형(2013: 318)은 지역사회참여를 “농촌주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민소영과 이영순(2014: 211)은 지역사회참여란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의 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수행되는 주민과 지역사회조직의 제반활동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 지역사회조직, 정부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참여를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공식 및 비공식적 집단 활동”이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를 ‘귀농·귀촌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지역사회의 집단이나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지역사회참여의 부문

사회참여 또는 지역사회참여의 부문(유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사회참여의 부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추용(2003)은 사회참여를 경제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 운동활동, 단체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누었다. 황정미·문경희·양혜우·정승희(2009)는 지역사회 참여 영역을 문화·교육, 자녀교육, 경제 및 취업, 지역주민 활동, 지자체 관련 활동, 이주민 단체 활동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형하(2010)는 사회참여 부문을 사회적 행사참여, 직업적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 친구와 어울리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성희자와 이강형(2013)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 부문을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외의 생산자 조직, 학습단체, 농업 관련 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분하였다. 김윤정과 강현정(2013)은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 유형을 소득활동, 자원봉사, 종교활동, 친목활동, 문화스포츠활동, 시민단체활동, 교육(배움)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허준수(2014)는 사회참여활동을 종교활동, 친목활동, 여가스포츠활동, 연고집단활동, 공익관련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참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황정임 외(2011)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유형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형,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형,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기여형으로 나누었다. 김정섭(2014)은 귀농인의 사회경제활동 유형을 농업,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농업과 무관한 직종에서

의 근로, 자원봉사, 지역사회 조직 참여, 학습, 문화·여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를 9가지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3.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성주인·박대식·마상진, 2011; 황정임 외, 2011; 김철규 외, 2011; 김정섭, 2014).

성주인 외(2011)는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에 이주한 후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친 후에 각종 모임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귀농·귀촌인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은 주민회의나 마을행사(45.9%),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30.1%), 영농조합·작목반 활동(17.1%), 동호회·여가문화 활동(13.7%), 지역사회 자원봉사(11.0%) 순으로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임 외(2011)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구체적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21명의 농촌 이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동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서'(52.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25.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음'(50.4%), '지역 정착'(30.6%), '경제적 도움'(11.6%) 등이었다.

김철규 외(2011)는 귀농·귀촌의 동기와 행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생계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 집단으로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안가치추구형'은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한 집단이다. '개인생활효용형'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귀농·귀촌을 한 이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의나 효용에 두는 집단이다.

김정섭(2014)은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을 분석·정리하였다. 그는 귀농인의 사회활동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조직 활동, 학습 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러 유형의 조직 참여 활동은 귀농인의 농촌 정착 과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귀농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동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농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는 단기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극소수

에 불과하다. 황정임 외(201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준비 기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동기, 다른 활동과의 병행 형태, 활동 계속 의향이 지역사회 참여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은진(2006)이 전국 15개 광역시·도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종교가 있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무직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곽현근과 유현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일수록, 교육 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동네조직에 참여하며 참여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2012)은 연령, 소득, 학력이 높을수록 시민단체 활동이나 지역정치 활동,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더 참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홍성모·황진수·류지성(2011)은 사회자본(규범, 신뢰, 네트워크)이 지역사회참여(정치참여, 수평적 지역사회참여, 수직적 지역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와 정치참여, 그리고 규범과 네트워크 변수는 수평적 지역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지역사회참여에는 규범과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참여에는 세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소영과 이영순(2014)은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구조, 거주기간, 경제적 특성,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이 되어 있을수록 여성의 지역사회참여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근홍·김효정·신현석·서문진희·송지원(2014)에 따르면, 중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유대감, 연대감, 지역사회의 물리적 생활환경 인식, 교육수준 순이었다. 즉,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연대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중 물리적 생활환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수(2014)는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적인 요인, 건강관련 요인, 경제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능력(IADL), 우울감, 정기적 운동, 계층의식, 한 달 용돈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으로 연령, 학력, 성별, 주거형태, 가구소득,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귀농·귀촌 동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를 장기적·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 조사 집단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하여 2014년에 실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¹⁾ 이 자료는 총 1,019명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것으로 귀농·귀촌인의 개인·가구 관련 특성과 더불어 귀농·귀촌 과정, 현재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참여, 귀농·귀촌에 대한 자가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마상진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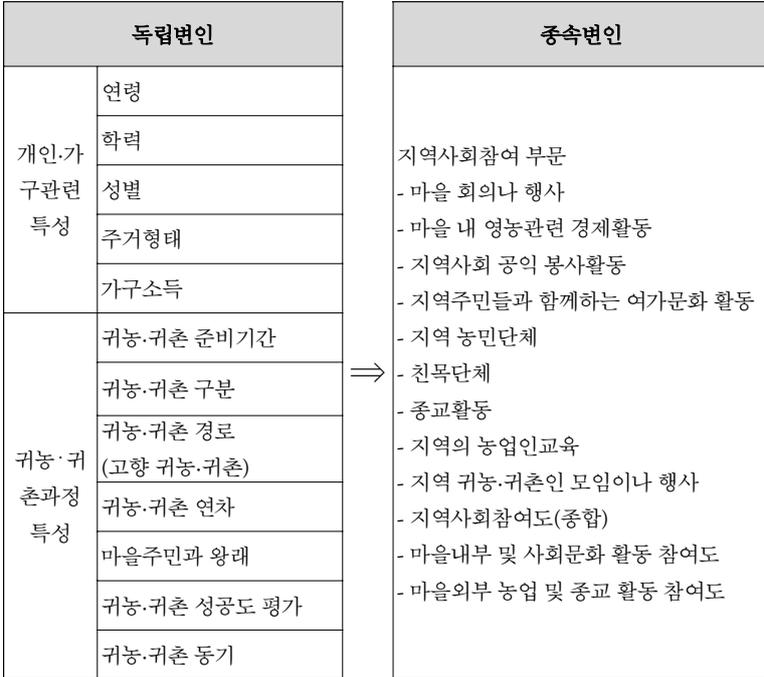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40세 이하’가 8.3%, ‘41~50세’가 28.5%, ‘51~60세’가 42.9%, ‘61세 이상’이 20.3%이다. 성별은 남성이 81.0%, 여성이 19.0%였고,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5%, ‘고등학교 졸업’이 28.3%, ‘전문대학 졸업’이 12.7%, ‘대학 졸업’이 43.8%, ‘대학원 졸업’이 8.5%이다. 귀농·귀촌 구분으로 귀농이 74.8%, 귀촌이 25.2%이다. 조사대상에서 귀촌인보다 귀농인의 구성 비율을 더 높게 한 이유는 다양한 주력품목(작목)별로 일정 수 이상의 ‘귀농인 표본’을 확보하여 관련 중앙 부처의 핵심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1) 이 조사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동일 집단에 대해 이뤄지며, 1차년도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12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2. 분석모형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자료에서의 자료 획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개인·가구 관련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성별, 주거형태, 가구소득을, 귀농·귀촌 과정 특성으로는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귀농·귀촌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 는 지역사회참여를 9가지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로 나누었고, 이 9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를 합제한 변인인 ‘지역사회 참여도(종합)’을 추가하였다. 또한 9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가지 요인(‘마을 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와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으로 구분하여 하부 척도를 구성하였다.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는 5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친목단체)로 구성되었다.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는 4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지역 농민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로 구성되었다.

〈그림 1〉 분석 모형



3. 분석방법

귀농·귀촌인의 개인·가구 관련 특성, 귀농·귀촌 과정의 특성, 개인·가구 및 귀농·귀촌 과정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속변인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참여를 9가지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9가지 지역사회참여의 각 부분의 참여도는 지역의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4점 척도(‘전혀 참여 안함’은 1점, ‘거의 참여 안함’은 2점, ‘가끔 참여’는 3점, ‘적극적으로 참여’는 4점)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9개 부분의 4점 척도를 합계하여 ‘지역사회참여도(종합)’을 계산하였다. 9개 부문(항목)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참여도(종합)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7이었다. 5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친목단체)로 구성된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2이었다. 4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지역 농민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로 구성된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57이었다.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연령, 학력, 성별, 주거 형태, 가구소득,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고향귀농·귀촌,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귀농·귀촌 동기)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는 1, ‘고졸’은 2, ‘전문대졸’은 3, ‘대졸’은 4, ‘대학원졸’은 5로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더미화하였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은 1, ‘기타’는 0으로 더미화하였다.

가구소득은 ‘500만원 미만’은 1, ‘500~1,000만원 미만’은 2, ‘1,00

0~1,500만원 미만'은 3, '1,500~2,000만원 미만'은 4, '2,000~3,000만원 미만'은 5, '3,000~4,000만원 미만'은 6, '4,000~5,000만원 미만'은 7, '5,000~6,000만원 미만'은 8, '6,000~7,000만원 미만'은 9, '7,000~8,000만원 미만'은 10, '8,000만원~1억원 미만'이 11, '1억원 이상'은 12로 측정하였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준비기간 없음'은 1, '6개월 미만'은 2, '6개월~1년 미만'은 3, '1~2년 미만'은 4, '2~3년 미만'은 5, '3년 이상'은 6으로 측정하였다. 귀농·귀촌 구분은 '귀농'은 1, '귀촌'은 0으로 더미화하였다. 귀농·귀촌 경로(고향 귀농·귀촌)는 '농촌출신으로서 고향으로 귀농·귀촌'은 1, '기타(농촌 출생으로서 타향으로 귀농·귀촌한 경우나 도시 출생으로서 귀농·귀촌한 경우)'는 0으로 더미화하였다. 귀농·귀촌 연차는 2014년에서 귀농·귀촌연도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마을주민과 왕래는 '거의 왕래 안함'은 1, '연 3~4회', 2, '월 1회 이상'은 3, '주 1회 이상'은 4, '매일'은 5로 측정하였다.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는 '매우 실패한 편이다' 1, '실패한 편이다' 2, '아직은 모르겠다' 3, '성공적인 편이다' 4, '매우 성공적이다' 5로 측정하였다.

귀농·귀촌 동기는 김철규 외(2011)를 참고하여 경제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나누었다. 경제생계형은 6가지 이유(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농촌이 도시보다 주택 구입이 쉬워서,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집안의 가업이름, 농사일이 좋아서,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위해)에 응답한 경우이다. 대안가치추구형은 4가지 이유(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위해서,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를 위해)에 응답한 경우이고, 개인생활효용형은 3가지 이유(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은퇴 후 여가

생활을 위해서,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에 응답한 경우이다. 3가지 유형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더미화하였다. 그리고 조사 분석에 활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이었다.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기초통계 자료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인인 9개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마을 회의나 행사’가 3.18점, ‘지역의 농업인 교육’이 2.96점,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가 2.86점, ‘친목단체’가 2.60점,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 활동’이 2.46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이 2.41점, ‘지역 사회 공익 봉사활동’이 2.24점, ‘종교활동’이 2.20점, ‘지역 농민단체’가 1.99점 순이었다. 즉, 귀농·귀촌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의 농업인 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순이었고, 귀농·귀촌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역 농민단체’, ‘종교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순이었다. 9개 부문의 4점 척도를 합계한 ‘지역사회참여도(종합)’의 평균은 22.61점(이것을 9로 나누면 2.51점)으로 나타났다. 5개 부문의 4점 척도를 합계한 ‘마을내부 및 사회 문화활동 참여도’의 평균은 12.74점(이것을 5로 나누면 2.55점)이고, 4개

부문의 4점 척도를 합계한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평균은 9.91점(이것을 4로 나누면 2.48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독립변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령은 ‘51~60세’가 42.9%, ‘41~50세’가 28.5%, ‘61세 이상’이 20.3%, ‘40세 이하’가 8.3%이었고, 평균 연령은 53.1세였다. 학력은 ‘대졸’이 43.8%, ‘고졸’이 28.3%, ‘전문대졸’이 12.7%, ‘대학원졸’이 8.5%로 나타나 ‘대학 졸업 이상’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3%)이었다.

성별은 남성은 81.0%, 여성은 19.0%이었고,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80.4%,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10.4%, ‘기타’가 9.2%이었다. 가구 소득은 ‘1,000만원 미만’이 21.3%, ‘1,000~2,000만원 미만’이 22.4%, ‘2,000~5,000만원 미만’이 39.4%, ‘5,000만원 이상’이 17.0%으로 나타나, 응답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 43.7%이었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준비기간 없음’은 9.6%, ‘6개월 미만’은 14.0%, ‘6개월~1년 미만’은 21.2%, ‘1~2년 미만’은 19.2%, ‘2~3년 미만’은 14.1%, ‘3년 이상’은 21.9%이었다. 귀농·귀촌 구분은 ‘귀농’이 74.8%, ‘귀촌’이 25.2%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경로는 ‘농촌 출생 → 고향 귀농·귀촌’은 30.5%, ‘농촌 출생 → 타향 귀농·귀촌’은 28.8%, ‘도시 출생 → 귀농·귀촌’은 40.7%로 나타나,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경우’는 응답자의 30.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 연도는 ‘2008년 이전’은 38.7%, ‘2009~2010년’은 36.1%, ‘2011~2012년’은 13.0%, ‘2013~2014년’은 12.2%로 나타나 응답자의 3/4 가량이 귀농·귀촌을 한 지가 5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마을주민과 왕래는 ‘매일’은 31.8%, ‘주 1회 이상’은 40.6%, ‘월 1회 이

상'은 15.4%, '연 3~4회'는 6.9%, '거의 왕래 안함'은 5.4%로 나타나, 응답자의 72.4%가 '적어도 주 1회 이상'은 마을주민과 왕래를 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스스로 평가했을 때 귀농·귀촌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매우 성공적이다'는 7.3%, '성공적인 편이다'는 37.8%, '아직은 모르겠다'는 49.9%, '실패한 편이다'는 4.1%, '매우 실패한 편이다'는 0.9%로 나타나, 응답자의 45.1%가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1〉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초통계

| | | 변인 | 통계치 |
|------------------------------------|---------------------------------|-----------------------------------|--------------|
| 종속 변인 |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마을회의나 행사 | 3.18(0.996) |
| | |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 2.46(1.218) |
| | |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 2.24(1.054) |
| |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 2.41(1.064) |
| | | 지역 농민단체 | 1.99(1.081) |
| | | 친목단체 | 2.60(1.145) |
| | | 종교활동 | 2.20(1.254) |
| | | 지역의 농업인교육 | 2.96(1.087) |
| | |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 2.86(1.049) |
| | | 지역사회참여도(9개의 4점 척도의 합계) | 22.61(5.840) |
| | |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5개의 4점 척도의 합계) | 12.74(3.751) |
|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4개의 4점 척도의 합계) | 9.91(2.950) | | |
| 독립 변인 | 연령 (평균: 53.1세) | 40세 이하 | 84(8.3%) |
| | | 41-50세 | 287(28.5%) |
| | | 51-60세 | 432(42.9%) |
| | | 61세 이상 | 204(20.3%) |
| | 학력 | 중졸 이하 | 66(6.5%) |
| | | 고졸 | 285(28.3%) |

| | | |
|-----------------|------------------|------------|
| | 전문대출 | 128(12.7%) |
| | 대출 | 441(43.8%) |
| | 대학원대출 | 86(8.5%) |
| 성별 | 남성 | 817(81.0%) |
| | 여성 | 192(19.0%) |
| 주거 형태 | 단독주택 | 810(80.4%) |
| | 아파트, 연립주택 | 105(10.4%) |
| | 기타 | 93(9.2%) |
| 가구소득 | 1,000만원 미만 | 213(21.2%) |
| | 1,000-2,000만원 미만 | 225(22.4%) |
| | 2,000-5,000만원 미만 | 396(39.4%) |
| | 5,000만원 이상 | 171(17.0%) |
| 귀농·귀촌 준비기간 | 준비기간 없음 | 97(9.6%) |
| | 6개월 미만 | 142(14.0%) |
| | 6-1년 미만 | 215(21.2%) |
| | 1-2년 미만 | 195(19.2%) |
| | 2-3년 미만 | 143(14.1%) |
| | 3년 이상 | 222(21.9%) |
| 귀농·귀촌 구분 | 귀농 | 751(74.8%) |
| | 귀촌 | 253(25.2%) |
| 귀농·귀촌 경로 | 농촌 출생 → 고향 귀농·귀촌 | 305(30.5%) |
| | 농촌 출생 → 타향 귀농·귀촌 | 288(28.8%) |
| | 도시 출생 → 귀농·귀촌 | 407(40.7%) |
| 귀농·귀촌 연도 | 2008년 이전 | 209(38.7%) |
| | 2009-2010년 | 186(36.1%) |
| | 2011-2012년 | 284(13.0%) |
| | 2013-2014년 | 254(12.2%) |
| 마을주민과 왕래 | 매일 | 320(31.8%) |
| | 주 1회 이상 | 409(40.6%) |
| | 월 1회 이상 | 155(15.4%) |
| | 연 3-4회 | 69(6.9%) |
| | 거의 왕래 안함 | 54(5.4%) |
|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 매우 성공적이다 | 74(7.3%) |
| | 성공적인 편이다 | 382(37.8%) |
| | 아직은 모르겠다 | 503(49.9%) |
| | 실패한 편이다 | 41(4.1%) |
| | 매우 실패한 편이다 | 9(0.9%) |
| 귀농·귀촌 동기 (복수응답) | 경제생계형 | 522(51.2%) |
| | 대안가치추구형 | 641(62.9%) |
| | 개인생활효용형 | 459(45.0%) |

〈표 2〉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

단위: 명, %

| 지역사회참여 | 전혀 참여 안 함 | 거의 참여 안 함 | 가끔 참여 | 적극적 참여 | 합계 |
|----------------------------------|-----------------|-----------------|---------------|---------------|----------------|
| 마을 회의나 행사 | 101 (10.4) | 106 (10.9) | 282 (29.1) | 480 (49.5) | 969 (100.0) |
|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 309 (33.0) | 152 (16.3) | 206 (22.0) | 268 (28.7) | 935 (100.0) |
|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 | 303 (32.5) | 234 (25.1) | 265 (28.4) | 130 (13.9) | 932 (100.0) |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동호회) | 258 (27.7) | 184 (19.8) | 334 (35.9) | 155 (16.6) | 931 (100.0) |
| 지역 농민단체 (농민회, 한농연 등) | 438 (46.7) | 189 (20.2) | 195 (20.8) | 115 (12.3) | 937 (100.0) |
| 친목단체 (계, 동문회 모임 등) | 253 (26.7) | 124 (13.1) | 317 (33.4) | 255 (26.9) | 949 (100.0) |
| 종교활동 | 428 (45.5) | 130 (13.8) | 148 (15.7) | 235 (25.0) | 941 (100.0) |
| 지역의 농업인 교육 (농업인 대학 등) | 165 (17.2) | 94 (9.8) | 320 (33.3) | 383 (39.8) | 962 (100.0) |
|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 162 (16.6) | 124 (12.7) | 371 (38.1) | 316 (32.5) | 973 (100.0) |

귀농·귀촌의 동기는 3가지 유형(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혼용형)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생계형은 6가지 이유(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농촌이 도시보다 주택 구입이 쉬워서, 실업이나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집안의 가업이름, 농사일이 좋아서,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관련 사업을 위해)에 응답한 경우이며, 응답자의 51.2%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가치추구형은 4가지 이유(도시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위해서,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를 위해)에 응답한 경우이며, 응답자의 62.9%가 이 유

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효용형은 3가지 이유(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에 응답한 경우이며, 응답자의 45.0%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가구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의 차이

개인·가구 특성(연령, 학력, 성별, 주거 형태, 가구소득)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9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의 참여비율은 ‘가끔 참여’와 ‘적극적으로 참여’에 응답한 비율의 합계이다.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참여의 경우는, ‘41~60세’ 연령층일수록,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성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 참여의 경우는, ‘41세 이상’ 연령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 농민단체’ 참여의 경우는, ‘41~60세’ 연령층일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남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친목단체’ 참여의 경우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종교활동’ 참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2,000~5,000만원’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의 농업인 교육’ 참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거나 대학원 졸업’일수록, 남성일수록, 주거형태가 ‘기타’일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참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표 3〉 개인·가구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

단위: %

| 구 분 | | 지역사회참여 | | | | | | | | |
|-------|----------------------|-----------|------------------|----------------|----------------------|----------|-------|-------|------------|-------------------|
| | | 마을 회의나 행사 |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 활동 | 지역 사회 공익 봉사 활동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 지역 농민 단체 | 친목 단체 | 종교 활동 | 지역의 농업인 교육 |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
| 연령 | 40세 이하 | 67.9 | 36.4 | 32.1 | 41.0 | 24.4 | 48.1 | 31.6 | 59.0 | 64.6 |
| | 41~50세 | 77.2 | 51.8 | 45.8 | 52.2 | 35.3 | 60.2 | 32.9 | 70.7 | 64.5 |
| | 51~60세 | 77.5 | 52.9 | 42.3 | 50.7 | 35.5 | 59.8 | 43.6 | 77.7 | 74.2 |
| | 61세 이상 | 86.9 | 50.9 | 38.5 | 58.0 | 29.6 | 65.2 | 48.8 | 77.1 | 67.6 |
| 학력 | 중졸 이하 | 94.0 | 72.3 | 43.5 | 59.6 | 43.8 | 77.6 | 52.1 | 75.9 | 82.4 |
| | 고졸 | 80.3 | 54.6 | 39.1 | 56.0 | 33.3 | 64.8 | 41.7 | 70.3 | 69.6 |
| | 전문대졸 | 78.6 | 52.7 | 44.6 | 51.8 | 29.6 | 64.9 | 33.0 | 76.1 | 76.7 |
| | 대졸 | 76.7 | 46.8 | 40.9 | 47.0 | 34.4 | 56.8 | 39.6 | 74.1 | 65.7 |
| | 대학원졸 | 70.0 | 43.8 | 46.9 | 55.8 | 27.8 | 44.9 | 44.3 | 77.5 | 65.8 |
| 성별 | 남성 | 79.3 | 53.2 | 42.2 | 50.4 | 33.9 | 60.9 | 39.9 | 75.6 | 70.4 |
| | 여성 | 75.0 | 39.5 | 42.9 | 62.2 | 29.7 | 56.8 | 44.6 | 62.6 | 71.3 |
| 주거 형태 | 단독주택 | 84.1 | 52.2 | 45.0 | 55.9 | 34.6 | 61.5 | 42.1 | 72.6 | 72.0 |
| | 아파트, 연립주택 | 50.0 | 38.1 | 28.3 | 38.1 | 25.5 | 50.5 | 31.6 | 70.7 | 58.6 |
| | 기타 | 60.2 | 51.7 | 34.5 | 39.5 | 28.7 | 59.8 | 40.7 | 80.7 | 71.6 |
| 가구 소득 | 1,000만원 미만 | 84.5 | 46.3 | 45.2 | 54.0 | 30.0 | 55.2 | 43.2 | 64.5 | 73.9 |
| |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 81.5 | 51.2 | 48.3 | 54.0 | 34.3 | 62.1 | 41.6 | 76.4 | 75.5 |
| | 2,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78.5 | 51.5 | 40.0 | 51.3 | 33.3 | 61.8 | 38.1 | 74.4 | 69.9 |
| | 5,000만원 이상 | 69.3 | 52.8 | 37.5 | 51.3 | 32.9 | 60.5 | 42.0 | 76.4 | 61.2 |

3. 귀농·귀촌 과정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의 차이

귀농·귀촌 과정 특성(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9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의 참여 비율은 ‘가끔 참여’와 ‘적극적으로 참여’에 응답한 비율의 합계이다.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의 경우는, 귀농·귀촌의 준비기간이 있을수록, 귀농인일수록,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대안가치추구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귀농·귀촌 경로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는, 귀농인일수록, 농촌 출생일수록,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경제생계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귀농·귀촌 준비기간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참여의 경우는, 귀농인일수록, 농촌 출생일수록,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대안가치추구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귀농·귀촌 준비기간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 참여의 경우는, 귀촌인일수록, 농촌 출생일수록,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개인생활효용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귀농·귀촌 준비기간별로는 별 다른 차이

가 없었다.

‘지역 농민단체’ 참여의 경우는, 귀농인일수록, 농촌 출생이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경제생계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귀농·귀촌 준비기간별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친목단체’ 참여의 경우는, 귀농·귀촌의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없을수록, 귀농인일수록, 농촌 출생이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경제생계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종교활동’ 참여의 경우는, 대체로 귀농·귀촌의 준비기간이 길수록, 귀촌인일수록, 도시 출생일수록, 귀농·귀촌 연도가 ‘2009~2010년’일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매일’이거나 ‘거의 왕래 안함’일수록, 대체로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경제생계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의 농업인 교육’ 참여의 경우는, 대체로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귀농인일수록, 농촌 출생이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경제생계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참여의 경우는, 귀농·귀촌의 준비기간이 길수록, 귀농인일수록, 농촌 출생이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되지 않을수록,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

록, 대체로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개인생활효용형’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표 4〉 귀농·귀촌 과정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

단위: %

| 구분 | 지역사회참여 | | | | | | | | | |
|-------------|------------------|------------------|----------------|----------------------|----------|-------|-------|------------|-------------------|------|
| | 마을 회의나 행사 |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 활동 | 지역 사회 공익 봉사 활동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 지역 농민 단체 | 친목 단체 | 종교 활동 | 지역의 농업인 교육 |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 |
| 귀농 귀촌 준비 기간 | 준비기간 없음 | 64.8 | 50.6 | 41.7 | 46.5 | 30.6 | 64.4 | 31.0 | 62.5 | 66.7 |
| | 6개월 미만 | 77.8 | 45.5 | 35.7 | 52.8 | 33.1 | 62.4 | 34.4 | 69.3 | 68.6 |
| | 6개월~1년 미만 | 80.3 | 52.8 | 45.3 | 50.0 | 32.2 | 57.8 | 38.5 | 71.4 | 68.1 |
| | 1~2년 미만 | 82.3 | 53.4 | 43.8 | 54.5 | 36.2 | 59.0 | 41.8 | 84.1 | 74.5 |
| | 2~3년 미만 | 78.1 | 45.0 | 36.9 | 50.4 | 34.1 | 61.9 | 48.1 | 70.6 | 73.7 |
| | 3년 이상 | 80.5 | 53.4 | 45.7 | 57.6 | 31.9 | 59.0 | 44.5 | 73.6 | 71.0 |
| 귀농 귀촌 구분 | 귀농 | 80.7 | 59.4 | 43.8 | 52.2 | 37.5 | 61.5 | 39.4 | 78.2 | 71.0 |
| | 귀촌 | 71.4 | 23.9 | 41.9 | 53.1 | 19.3 | 55.7 | 43.9 | 58.0 | 67.8 |
| 귀농 귀촌 경로 | 농촌 출생 → 고향 귀농·귀촌 | 78.7 | 61.2 | 45.4 | 56.9 | 39.5 | 77.3 | 38.5 | 77.6 | 72.2 |
| | 농촌 출생 → 타향 귀농·귀촌 | 78.1 | 50.4 | 40.9 | 52.3 | 30.0 | 51.5 | 40.4 | 69.7 | 68.8 |
| | 도시 출생 → 귀농·귀촌 | 78.9 | 42.6 | 40.6 | 49.1 | 29.8 | 53.8 | 42.6 | 72.4 | 70.1 |
| 귀농 귀촌 연도 | 2008년 이전 | 85.6 | 59.2 | 49.2 | 60.0 | 43.1 | 65.1 | 39.9 | 72.9 | 61.3 |
| | 2009~2010년 | 77.5 | 57.1 | 48.0 | 55.6 | 37.3 | 59.6 | 45.0 | 72.7 | 69.1 |
| | 2011~2012년 | 81.9 | 48.8 | 42.9 | 51.2 | 31.7 | 63.3 | 39.0 | 77.7 | 71.2 |
| | 2013~2014년 | 69.8 | 41.1 | 30.5 | 42.3 | 23.9 | 52.7 | 37.8 | 71.1 | 73.3 |
| 마을 | 매일 | 91.1 | 63.5 | 50.7 | 61.4 | 41.4 | 73.4 | 43.6 | 77.8 | 75.6 |

| | | | | | | | | | | |
|-----------------------|---------------|------|------|------|------|------|------|------|------|------|
| 주민과 왕래 | 주 1회 이상 | 80.3 | 49.2 | 42.5 | 60.0 | 34.5 | 61.2 | 41.4 | 73.5 | 72.1 |
| | 월 1회 이상 | 75.5 | 45.8 | 42.9 | 40.8 | 21.1 | 50.7 | 32.6 | 68.7 | 64.6 |
| | 연 3~4회 | 50.7 | 27.4 | 23.8 | 22.6 | 30.2 | 36.5 | 35.9 | 68.2 | 59.1 |
| | 거의 왕래 안함 | 34.0 | 27.1 | 14.6 | 16.7 | 12.5 | 31.3 | 44.9 | 59.2 | 60.0 |
| 귀농 귀촌 성공도 평가 | 매우 성공적이다 | 85.9 | 54.4 | 55.9 | 68.7 | 36.8 | 66.2 | 44.8 | 78.3 | 76.5 |
| | 성공적인 편이다 | 84.5 | 55.7 | 48.2 | 58.9 | 36.5 | 63.1 | 42.3 | 74.7 | 69.9 |
| | 아직은 모르겠다 | 73.3 | 47.2 | 36.6 | 46.4 | 30.6 | 58.5 | 38.5 | 71.4 | 71.0 |
| | 실패한 편이다 | 78.4 | 42.4 | 33.3 | 44.1 | 22.9 | 54.3 | 40.5 | 71.1 | 63.2 |
| | 매우 실패한 편이다 | 62.5 | 28.6 | 50.0 | 14.3 | 28.6 | 14.3 | 37.5 | 71.4 | 62.5 |
| 귀농 귀촌 동기 | 경제생계형 | 76.2 | 54.3 | 41.1 | 51.3 | 34.9 | 63.6 | 43.2 | 78.5 | 70.9 |
| | 대안가치추구형 | 79.6 | 47.3 | 43.6 | 52.7 | 30.7 | 56.9 | 38.4 | 68.7 | 70.1 |
| | 개인생활효용형 | 78.8 | 51.4 | 39.6 | 54.5 | 32.3 | 62.5 | 42.4 | 72.6 | 71.8 |

4.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관련 요인 분석

<표 5>와 <표 6>에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측정방법은 <III-3절>의 분석방법에서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공차한계(residual vari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측정하고²⁾,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등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

2) 일반적으로 공차한계(residual variance)가 0.3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서 회귀계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음을 확인하였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8.4%(27.3%)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단독주택 여부),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는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고향 귀농·귀촌은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346), 주거형태(Beta=0.243), 귀농·귀촌 구분(Beta=0.096) 순이었다.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9.3%(18.0%)로 나타났다. 성별,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는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은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귀농·귀촌 구분(Beta=0.279), 마을주민과 왕래(Beta=0.187), 학력(Beta=-0.110), 성별(Beta=0.109) 순이었다.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7.6%(6.1%)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는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197), 귀농·귀촌 연차

(Beta=0.091),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Beta=0.085) 순이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2.1%(10.7%)로 나타났다. 연령, 주거형태,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252),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Beta=0.096) 순이었다.

‘지역 농민단체’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9%(8.5%)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구분,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는 ‘지역 농민단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민단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귀농·귀촌 연차(Beta=0.183), 귀농·귀촌 구분(Beta=0.137), 마을주민과 왕래(Beta=0.129) 순이었다.

‘친목단체’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4.1%(12.7%)로 나타났다. 고향 귀농·귀촌과 마을주민과 왕래는 ‘친목단체’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학력이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234), 고향 귀농·귀촌(Beta=0.176) 순이었다.

〈표 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독립변인 | 종속변인(지역사회참여) | | | | | | | | | |
|-------------------------------------|--|-------------------------|------------------------|------------------------|-------------------------|-------------------------|------------------------|-----------------------|------------------------|----------------------|
| | 마을 회의나 행사 |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 지역 사회 공익 봉사 활동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 활동 | 지역 농민 단체 | 친목 단체 | 종교 활동 | 지역의 인 교육 |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 |
| 개인 가구 관련 특성 | 연령 | .049 | .019 | .010 | .066* | -.028 | .080* | .134*** | .128*** | .067* |
| | 학력 | -.054 | -.110** | .029 | -.020 | -.048 | -.084* | .042 | .034 | -.059 |
| | 성별 ¹⁾ | .051 | .109** | .017 | -.055 | .048 | .012 | -.062 | .027 | .015 |
| | 주거형태 ²⁾ | .243*** | .046 | .032 | .073* | .050 | .018 | .018 | .003 | .026 |
| | 가구소득 | -.086** | .043 | -.076* | .002 | -.010 | .044 | .002 | .054 | -.033 |
| 귀농 귀촌 과정 특성 | 귀농·귀촌 준비기간 | .072* | .033 | .028 | .037 | .063 | .010 | .077* | .054 | .017 |
| | 귀농·귀촌 구분 ³⁾ | .096** | .279*** | -.024 | -.005 | .137*** | .015 | -.030 | .202*** | .064* |
| | 고향 귀농·귀촌 ⁴⁾ | -.065* | .037 | .034 | .019 | .025 | .176*** | -.039 | .014 | -.036 |
| | 귀농·귀촌 연차 | .082** | .079* | .091** | .083** | .183*** | .037 | .030 | -.072* | -.109** |
| | 마을주민과 왕래 | .346*** | .187*** | .197*** | .252*** | .129*** | .234*** | .058 | .091** | .118*** |
| |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 .076* | .032 | .085* | .096** | .025 | .047 | -.006 | .061 | .061 |
| | 귀농·귀촌 동기 ⁵⁾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 -.059 -.025 -.034 | .022 -.034 -.002 | -.004 .007 -.034 | -.007 -.024 -.002 | -.008 -.081 -.020 | .030 -.031 -.011 | .039 -.046 .011 | .014 -.100 -.045 | .001 .008 .019 |
| 상수 | .723 | .493 | .807 | .362 | .989 | .787 | .698 | 1.086 | 1.839 | |
| R ² (수정 R ²) | .284 (.273) | .193 (.180) | .076 (.061) | .121 (.107) | .099 (.085) | .141 (.127) | .040 (.025) | .097 (.083) | .051 (.037) | |
| F | 25.808 | 15.055 | 5.125 | 8.601 | 6.969 | 10.435 | 2.659 | 6.934 | 3.508 | |

1) 더미변인(남성=1, 여성=0), 2) 더미변인(단독주택=1, 기타=0), 3) 더미변인(귀농=1, 귀촌=0), 4) 더미변인(고향으로 귀농·귀촌=1, 기타=0), 5)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은 해당=1, 비해당=0인 더미변인임.

* P < .05, ** P < .01, *** P < .001

‘종교활동’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0%(2.5%)로 나타났다. 연령과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종교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연령($Beta=0.134$)이었다.

‘지역의 농업인 교육’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7%(8.3%)로 나타났다. 연령, 귀농·귀촌 구분, 마을주민과 왕래는 ‘지역의 농업인 교육’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농업인 교육’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귀농·귀촌 구분 ($Beta=0.202$), 연령($Beta=0.128$) 순이었다.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1%(3.7%)로 나타났다. 연령, 귀농·귀촌 구분, 마을주민과 왕래는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귀농·귀촌 연차’이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118$), 귀농·귀촌 연차($Beta=-0.109$) 순이었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9가지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의 4점 척도를 합쳐하여 계산한 ‘지역사회참여도(종합)’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9.2%(17.8%)로 나타났다. 연령, 주거형태(단독주택 여

부),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는 ‘지역사회참여도(종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도(종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없었다. ‘지역사회참여도(종합)’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297), 귀농·귀촌 구분(Beta=0.141), 주거형태(Beta=0.098), 연령(Beta=0.094) 순이었다.

5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친목단체)로 구성된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9%(23.7%)로 나타났다. 주거형태,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고향 귀농·귀촌,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는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학력이었다.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351), 귀농·귀촌 구분(Beta=0.117), 주거형태(Beta=0.117) 순이었다.

4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지역 농민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로 구성된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8.0%(6.5%)로 나타났다. 연령,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마을주민과 왕래,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귀농·귀촌 동기의 ‘대안가치

〈표 6〉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독립변인 | | 종속변인(지역사회참여도) | | |
|-------------------------------------|---|-----------------------------------|---|--|
| | | 지역사회 참여도 (9개의 4점 척도의 합계) |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도 (5개의 4점 척도의 합계) |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 (4개의 4점 척도의 합계) |
| 개인 가구 관련 특성 | 연령 | .094** | .060 | .121** |
| | 학력 | -.047 | -.068* | .000 |
| | 성별 ¹ | .046 | .049 | .019 |
| | 주거형태 ² | .098** | .117*** | .035 |
| | 가구소득 | .013 | .001 | .014 |
| 귀농 귀촌 과정 특성 | 귀농·귀촌 준비기간 | .049 | .040 | .075* |
| | 귀농·귀촌 구분 ³ | .141*** | .117*** | .131*** |
| | 고향 귀농·귀촌 ⁴ | .021 | .065* | -.022 |
| | 귀농·귀촌 연차 | .064* | .098** | .008 |
| | 마을주민 과 왕래 | .297*** | .351*** | .144*** |
| |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 .084* | .097** | .039 |
| | 귀농·귀촌 동기 ⁵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 .000 -.060 -.040 | -.012 -.032 -.043 | .016 -.086* -.031 |
| 상수 | 7.951 | 3.176 | 4.452 | |
| R ² (수정 R ²) | .192 (.178) | .249 (.237) | .080 (.065) | |
| F | 13.823 | 19.774 | 5.360 | |

1) 더미변인(남성=1, 여성=0), 2) 더미변인(단독주택=1, 기타=0), 3) 더미변인(귀농=1, 귀촌=0), 4) 더미변인(고향으로 귀농·귀촌=1, 기타=0), 5)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은 해당=1, 비해당=0인 더미변인임.

* $P < .05$, ** $P < .01$, *** $P < .001$

추구형'이었다.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Beta=0.144), 귀농·귀촌 구분(Beta=0.131), 연령(Beta=0.121) 순이었다.

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이유 및 장애요인

<표 7>에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귀하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복수응답)에 의하면, '친목 도모'가 7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적 인맥 확대'(54.6%), '사회봉사'(23.9%), '자아실현'(23.2%) 순이었다.

<표 7>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N=984)

| 구분 | 빈도 | 비율(%) |
|----------------|-----|-------|
| 친목 도모 | 733 | 74.5 |
| 사회적 인맥 확대 | 488 | 54.6 |
| 사회봉사 | 235 | 23.9 |
| 자아실현(취미, 재능개발) | 228 | 23.2 |
| 여가 활동 | 139 | 14.1 |
|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 111 | 11.3 |

<표 8>에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장애요인이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복수응답)에 의하면, '참여 관련 기회나 정보 부족'이 6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바빠서 시간이 없음'(43.2%), '인맥

부족’(37.5%), ‘마을사람들의 텃세’(14.1%) 순이었다.

〈표 8〉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복수응답)

(N=969)

| 구분 | 빈도 | 비율(%) |
|------------------------|-----|-------|
| 참여 관련 기회나 정보 부족 | 652 | 67.3 |
| 바빠서 시간이 없음 | 419 | 43.2 |
| 인맥(네트워크) 부족 | 363 | 37.5 |
| 마을사람들의 텃세 | 137 | 14.1 |
| 내 능력·자신감 부족 | 113 | 11.7 |
| 이동의 제한(교통 불편, 이동수단 없음) | 85 | 8.8 |
| 신체적 한계(병 또는 육체적 한계 포함) | 63 | 6.5 |
| 기타 | 37 | 3.8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가끔 참여’와 ‘적극적 참여’의 합계) 비율은 ‘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친목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주인 외(2011)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지역 농민단체’와 ‘종교활동’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3)의 경우,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 농민단체)을 제외한 7개 지역

사회참여 부문에서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5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 활동, 친목단체, 종교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과 지역사회 참여도(종합) 및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경우에 연령이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은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혜정, 2012; 민소영·이영순, 2014)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력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3)의 경우, 사회참여 부문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홍은진, 2006; 김혜정, 2012; 김근홍 외, 2014; 허준수, 2014)과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친목단체)과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도’의 경우에만 학력이 지역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3)의 경우, 5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지역의 농업인교육)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나,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

동, 종교활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여가문화활동과 종교활동은 조직 구성원과 활동 내용의 여성 친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여성일수록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허준수, 2014)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에서는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의 경우에만 성별이 지역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3)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9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 모두에서 참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지역사회참여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 지역사회참여도(종합),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도’의 경우에 주거형태가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3)의 경우, 4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김혜정, 2012; 허준수, 2014)과 일치한다. 그러나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마을 회의나 행사’와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가구소득이 지역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 준비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귀농·귀촌 준비기간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4)의 경우, 4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종교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나,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참여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 참여의 경우,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종교활동)과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경우에만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귀농·귀촌 구분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4)의 경우, 7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귀농인일수록 참여 비율이 높았으나,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활동, 종교활동)에서는 귀촌인일수록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즉, 여가문화활동과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귀촌인이 귀농인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5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회이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 농민단체,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지역사회 참여도(종합),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도',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경우에 '귀농·귀촌 구분'이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 경로(고향 귀농·귀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귀농·귀촌 경로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4)의 경우,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종교활동)을 제외한 7개 지역사회참여 부문에서 '농촌 출생'이거나 '농촌 출생이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농촌 출생'이거나 '농촌 출생이면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은 도시 출생보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연결망이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인(홍성효·송정기·김종수, 2012; von Reichert et al., 2014)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도시 출생일수록 참여 비율이 더 높았으나 '마을 회의나 행사'의 경우는 귀농·귀촌 경로별 차이가 없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는 '고향 귀농·귀촌'이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귀농·귀촌 연차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4)의 경우, 2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종교활동,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을 제외한 7개 지역사회참여 부문에서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될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귀농·귀촌 연도가 ‘2009~2010년’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으나,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경우에는 귀농·귀촌 연차가 오래되지 않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는 귀농·귀촌의 초창기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에서는 5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지역사회참여도(종합),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화활동 참여도’의 경우에 귀농·귀촌 연차가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이었고, ‘지역의 농업인교육’과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귀농·귀촌 연차가 지역사회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마을주민과의 왕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마을주민과의 왕래 정도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4)의 경우, ‘종교활동’을 제외한 8개 지역사회참여 부문에서 마을주민과 왕래가 많을수록 참여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종교활동’의 경우는 마을주민과의 왕래가 ‘매일’이거나 ‘거의 왕래 안함’일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도 ‘종교활동’을 제외한 8개 지역사회참여 부

문과 지역사회 참여도(종합),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도’, ‘마을의 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의 경우에 마을주민과의 왕래는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비율의 차이 분석(표 4)의 경우, 9개 지역사회참여 부문에서 대체로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참여비율이 높았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표 5와 표 6)에서도 3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활동), 지역사회 참여도(종합),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도’의 경우에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가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9개의 지역사회참여 부문(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의 4점 척도를 합계하여 계산한 ‘지역사회참여도(종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연령, 주거형태(단독주택 여부),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도(종합)’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구분, 주거형태, 연령의 순이었다.

5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동, 친목단체)로 구성된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주거형태,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고향 귀농·귀촌,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이었고,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학력이었다. ‘마을내부 및 사회문화 활동 참여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구분, 주거형태 순이었다.

4가지 ‘지역사회참여 4점 척도’(지역 농민단체, 종교 활동, 지역의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로 구성된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연령,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귀농 여부), 마을주민과 왕래이었고,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귀농·귀촌 동기의 ‘대안가치추구형’이었다. ‘마을외부 농업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은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구분, 연령 순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주요 지역사회참여 이유(복수응답)는 ‘친목 도모’가 7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회적 인맥 확대’(54.6%), ‘사회봉사’(23.9%), ‘자아실현’(23.2%) 순이었다. 즉, 귀농·귀촌인은 주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사회적 인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집단이나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황정임 외(2011)의 조사연구에서 밝혀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주요 동기들(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장애요인(복수응답)은 ‘참여 관련 기회나 정보 부족’이 6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바빠서 시간이 없음’(43.2%), ‘인맥 부족’(37.5%), ‘마을사람들의 텃세’(14.1%)의 순이

었다. 귀농·귀촌인이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귀농·귀촌인단체 등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농한기 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연령, 학력, 성별, 주거 형태, 가구소득,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 구분, 귀농·귀촌 경로(고향귀농·귀촌), 귀농·귀촌 연차, 마을주민과 왕래,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는 참여의 부문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참여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자본(홍성모 외, 2011; 유민이·이숙중·문상호, 2012), 공동체의식(민소영·이영순, 2014), 건강관련 요인(이성은, 2013; 허준수, 2014) 등도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 대상의 총 5년차 조사 중에서 제1차 년도의 조사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상당히 제한된 변인만을 분석에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사회자본, 공동체의식, 건강 등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도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어서 지역사회참여의 종단적인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의 종단적인 변화 과정도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하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논의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5월 25일: 접수/ 2015년 6월 18일: 수정/ 2015년 6월 2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곽현근·유현숙. 2007.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김근홍·김효장·신현석·서문진·홍승지원. 2014. “중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과 생활환경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0: 53-81.
- 김윤정·강형정. 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90-1099.
-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53-89.
- 김철규·이혜잔·김기홍·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혜정. 2012. “지역사회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윤자·최용욱·남기찬. 2014.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 연구자료 D3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 민소영·이영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 207-235.
- 박대식·마상진·최윤자·남승희. 2014. 『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연구자료 D3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 박문호·오내원·임지은. 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 방안』, 연구보고 R6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 R7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대식·마상진. 20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정책/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희자·이강형. 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 유민아·이숙종·문상호. 2012.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인식을 매개로 한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2012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53-374.
- 이성은. 2013.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3): 343-354.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

- 국사회복지학』 62(3): 219-245.
- 조추용. 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7-34.
- 주성수. 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 최현섭. 2000.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연구』 10: 65-85.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4년 귀농·귀촌인통계.
- 황정미·문경화·양혜우·정승희.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황정임·최윤자·조현민·윤순덕. 2011. 『농촌지도와 개발』 18(4): 729-764.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235-263.
- 홍성모·황진수·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9: 291-319.
- 홍성효·송정기·김중수. 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 진안군의 사례”, 『농촌사회』 22(2): 49-82.
- 홍은진. 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33-71.
- Brown, David L. 2002. “Migration and Community: Social Networks in a Multi-level World”, *Rural Sociology* 67(1): 1-23.
- von Reichert, C., J. B. Cromartie, R. O. Arthun. 2014. “Impacts of Return Migration on Rural U.S. Communities”, *Rural Sociology* 79(2): 200-226.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Park, Dae Shik · Nam, Se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o identify the related variabl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urban-to-rural migrants survey(2014),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ty participation rate of urban-to-rural migrants was high in 'community meeting or event', 'local farmer education', 'local urban-to-rural migrants' meeting or event', and 'social gathering' in descending order. Second,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varied depending on age, level of education, sex, type of residence, household income, preparatory period, type of urban-to-rural migration(returning to farming or returning to rural villages), process of urban-to-rural migration, years of settlement, interaction with neighbors, self-evaluation on the success, and motivation. Third,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area of participation. Fourth, urban-to-rural migrants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primarily to promote friendship or make more personal connections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were 'lack of opportunity or information', 'too busy to participate', 'lack of personal connections' and so on.

Key words: Urban-to-Rural Migrant, Community Participation,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of Urban-to-Rural Migration

박대식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촌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등이 있다.

E-mail: pds8382@krei.re.kr

남승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초청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이며, 농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snam@krei.re.kr